

WildflowerLetter

들꽃편지 670

2024.11.22.소설

<https://cyw.pe.kr>

진짜 복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아마도 한국 교회 교인들이 가장 원하는 설교는 ‘복 받으라’는 설교가 아닐까요? 그래서 ‘복 받는 설교’를 하면 아주 ‘아멘’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 이야기를 하면 싫다는 표시로 “음... 으흠...” 하면서 표정이 변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복(福)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병장수, 출세, 돈 많이 버는 것, 높은 지위, 권세를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가치중립적인 것이지 진짜 복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그 돈을 뜯어먹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돈을 지키기 위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돈 많은 재벌가들의 암투는 드라마의 소재가 됩니다. 가장 건강하고 힘이 쎈 사람들은 조폭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당이 무슨 복입니까? 높은 자리에 앉은 권력자들의 추잡한 추문 뉴스를 보는 것은 괴롭습니다. 암투와 로비와 협잡으로 권력을 잡고서 온 국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무슨 복입니까?

성경 기준으로 복(福)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시73:28)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복’이라는 것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육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진짜 복’이고, 세상이 말하는 복은 화려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허상에 불과한 ‘가짜 복’입니다. 가짜에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복을 누리고 싶은 최용우 올립니다.



□ 느낌



귀상전 심중국 (机上典 心中菊)

책상 위엔 책
마음 속엔 국화

전각/이준오

추방당한 임금

하나님의 영은 만인(萬人)속에 계신다.
그분이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모든 인간 속에
주인으로 모셔져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토에서
추방당한 임금처럼 간혀 계시는 경우가 더 흔하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자기 몸 속에다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두어 질식시키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제 속에 간혀 있는
그리스도를 해방시켜 드려야 한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61 속도위반

제가 출퇴근하는 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60km입니다. 흥성읍내 내포신도시와 예산읍내는 모두 50km입니다. 학교와 어린이집 앞에서는 30km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80km 혹은 90km 가까이 달릴 때가 있습니다.

과속카메라가 나오면 급히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어느 날 평소대로 달리다가 과속 단속 카메라가 보이기에 속도를 줄이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거짓 눈 속임야.”

깜짝 놀랐습니다. 여짓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다녔고 당연히 그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 나라에서 이 도로는 50km를 넘지 말라고 정하여 놓았는데 무시하고 질서를 어기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라의 법을 어긴 그것조차 세밀히 살피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카메라에 찍힌대로 벌금을 낸다면 얼마나 낼까 생각하니 두려움이 앞섭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속도를 잘 지켜야지.”

시속 60km으로 갑니다. 모든 차들이 옆으로 썩씩 지나갑니다. 제 뒤에서 따라오는 차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뒤에서 크랙션을 누르며 라이트를 켜고 비켜라고 신호를 합니다. 할 수 없이 속도를 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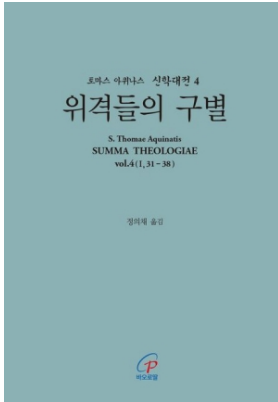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도로의 속도를 맞추며 운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셤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저, 괜찮은 것 같네요.

위격들의 구별



토마스 아퀴나스<신학대전>1부 제4권 (31-38)
S.T Aquinatis 지음/정의채 옮김
328쪽 26,000원 바오로딸 1997.2024 2판

- 31. 하나님 안에서 단일성 혹은 복수성
- 32. 하나님의 위격들의 인식에 대하여
- 33. 성부의 위격에 대하여
- 34. 성자의 위격에 대하여
- 35. 모습(혹은 모상(模像))에 대하여
- 36. 성령의 위격에 대하여
- 37. 사랑이라는 성령의 명칭에 대하여
- 38. 은사라는 성령의 명칭에 대하여

31. 하나님 안에서 단일성(單一性) 혹은 복수성(複數性)에 속하는 것들

- ①하나님 안에 삼일성(三一性) 즉 삼위일체(三位一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명칭은 실체를 표시하거나 관계를 표시한다. 그런데 삼일성은 다른 것에 대한 대타적 명칭이 아니기에 실체나 관계성이 없다. 그러므로 삼일성, 즉 삼위일체(三位一體)라는 명칭은 하나님께는 적절하지 않다.
- ②성자는 성부께 대해 타자(他者)가 아니다. 성자는 성부와 차별되는 존재가 아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세 위격을 말할 때 그것은 세 위격의 차별성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하고 했다.
- ③‘홀로’, ‘오직 ...만’, ‘유독’ 또는 ‘유일한’이라는 배타사(排他詞)가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 명사에 부가될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천사들과 거룩한 영혼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홀로’라고 할 수 없다.
- ④배타사(排他詞)가 위격적 명사에 부가되는 것은 가능하다. 술어가 공통적인 것일 지라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하나의 위격은 다른 위격의 개념 안에 있기 때문이다. 성부는 성자의 개념 안에 있으며 성자의 개념도 성부 안에 있다. 그러므로 ‘오직 성부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32. 하나님의 위격들의 인식에 대하여

- ①하나님의 위격들의 삼위성(三位性, 삼위일체성(三位一體性))이 자연적 이성에 의

해서도 인식될 수 있다. 철학자들은 자연적 이성에 의해서만 하나님 인식에 도달한다. 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만유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일 뿐이다.

②우리는 하나님 안에 인식적 표징(標徵)들을 조정(措定)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거룩한 말씀들에 의해 우리에게 명백하게 표명된 것 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어떤 것도 감히 스스로 상상하여 말해서는 안 된다.'

③하나님에 대한 고유한 인식적 표징은 넷만 있다. 즉, 원성(原性), 부성(父性), 자성(子性) 영성(靈性:성령)이다.

④인식적 표징들에 대해 상반되는 견해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위격들은 인식적 표징들에 의해서만 인식되기 때문이다.

33. 성부의 위격에 대하여

①성부는 성자 혹은 성령의 근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근원이라는 명칭은 더 먼저에서 온다는 뜻인데, 하나님 안에는 더 먼저와 더 후가 없다. 성부와 성자는 동등한 위치이며 먼저와 후가 없다.

②'성부'라는 명칭은 하나님 위격의 고유한 양태의 명칭이 아니다. 아버지라는 명칭은 관계를 표시한다. 그런데 위격은 개별적이거나 개체적인 실체이다. 그러므로 '성부 아버지'라는 명칭은 인간들의 이해를 위한 상징적인 명칭이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는 뜻은 아니다.

③하나님에 있어서 성부라는 명칭은 그것이 위격적으로 취해지는 데 근거하여 더 전에 혹은 우선적으로 말해지는 것은 아니다. 삼위일체라(三位一體)라는 말에는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이라는 순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남아지지 않은 것(남아지지 않은 존재)은 성부께 고유한 것이 아니다. 고유성은 그 고유성이 소속되는 것 안에 어떤 것을 놓아주는데 '남아지지 않는 자'는 성부 안에 어떤 것도 놓아주지 않고 오히려 성부에게서 어떤 것을 제거할 뿐이다.

34. 성자의 위격에 대하여

①하나님에 있어 말씀은 본질적으로 말해지는가 아니면 위격적으로 말해지는가? 오리게네스는 '하나님 안에서 비유적으로 말해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말은 하나님 안에서 위격적이지 않다.

②말씀은 성자께 고유한 명칭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자는 자존(自存)하는 위격이다. 그런데 말은 우리 안에서 자존하는 사물을 표시하지 않는다.

③말씀의 명칭에는 피조물과의 관련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피조물은 결과를 내포하는 모든 명칭이 본질적으로 말해진다. 그런데 말씀은 본질적으로가 아닌 '위격적'으로 말해지기 때문에 말씀은 피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35. 모습(혹은 모상<模像>)에 대하여

- ①모습(모상)은 하나님 안에서 위격적으로 말해지지 않는다. 어거스틴은 ‘거룩한 삼위일체의 신성과 인간이 그것에 따라 만들어진 모상(형상)은 하나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모습은 본질적으로 말해지는 것이며 위격적으로 말해지는 것은 아니다.
- ②모습 혹은 모상이란 명칭은 성자에게 고유한 명칭이 아니다. 그 이유는 성령도 성자의 모상이기 때문이다.

36. 성령의 위격에 대하여

- ①성령이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어떤 위격에 고유한 것이 아니다. 세 위격들의 공통된 명칭은 어떤 한 명칭에 고유한 명칭이 아니다. 그런데 성령이라는 명칭은 세 위격들에 공통된 것이다.
- ②성령은 성자로부터 발출하지 않는다. 다만 성경은 성령은 성부로부터 발출한다고 한다.(요15:26)
- ③성령은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 발출하지 않는다. 성자는 출생으로 그 존재를 갖게 된다. 따라서 만일 성령이 성자를 통해 있게 된다면 성자가 먼저 출생하고 후에 성령이 발출한다는 결론인데 그런 경우 성령을 영원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그것은 이단적인 생각이다.
- ④성부와 성자는 성령의 한 근원이 아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본성이 성부와 성자와 하나이기 때문이다.

37. 사랑이라는 성령의 명칭에 대하여

- ①사랑은 성령의 고유한 명칭이 아니다. 그 이유는 성자도 성령도 사랑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사랑은 성령만의 고유한 명칭이 아니다.
- ②성부와 성자는 성령에 의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 어떤 개념적 작용도 그 작용의 근원으로 되돌려져 말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38. 은사라는 성령의 명칭에 대하여

- ①은사는 위격적 명칭이 아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위격들에는 주체와 종속자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은사는 그것이 주어지는 자와 그것을 주는 자에 대한 어떤 종속을 내포하기 때문에 은사는 위격적 명칭이 아니다.
- ②은사는 성령에게 고유한 명칭이 아니다. 고유한 명칭은 그 위격의 어떤 고유성을 표시한다. 그런데 은사라는 명칭은 성령의 어떤 고유성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에게 고유한 명칭이 아니다. -정리:최용우

남은 날 동안



내 생명은 얼마나 남았을까?
그거야 할 수 없지만
매 순간 더 자주 미소 짓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한번 더 당신을 안아 주리라
내 생명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용우 제9시집<일출봉에 햇별이 쨍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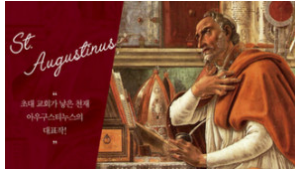


덧글/

잘 아는 사람의 갑작스런 죽음을 대할 때마다 나의 생명도 어느 순간 갑자기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빈부귀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공평한 것은 자기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비확산 일출봉 시인의 산중 연가(山中戀歌) 일출봉에 햇별이 쨍하오 최용우 지음 210쪽(울컬리) 13600원
	꽃같은 그대 있어 이 세상이 꽃 같습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시 최용우 지음 216쪽(울컬리) 15000원

두 나라의 참된 기원-천사들의 순종과 반항



310. 삼위일체와 철학의 세 부문

철학자들은 학문을 자연학, 논리학, 윤리학으로 나누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라틴어는 '자연철학'(naturalis) '이성철학'(rationalis) '도덕철학'(moralis)이다. 플라톤이 처음으로 삼분법을 발견해 널리 알렸다고 한다. 그들은 삼분법을 스스로 발명한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찾아냈을 뿐이다.

311. 인간정신 속에 담긴 삼위일체의 형상-존재-지식-사랑

우리 자신 안에는 하나님 형상, 즉 행복한 삼위일체가 있다. 실재, 존재, 지식이 다. 우리는 존재하며,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존재와 존재에 대한 지식을 사랑한다. 물론, 그 생김새는 하나님과 같지 않고 오히려 크게 다르다.

312. 삼위일체의 흔적은 여러 피조물 속에서 볼 수 있다

이성이 없어 헤아림을 할 줄 모르는 생명체들조차, 커다란 뱀에서 자그마한 벌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신이 존재하기를 바라며, 온 힘을 다해 죽음을 피하려 한다. 보이는 움직임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풀과 나무들도 저마다 생명을 이어가려고 애쓴다. 땅속으로 뿌리를 더 깊이 뻗어 영양분을 빨아들이며, 하늘로 건강한 가지를 들어 올린다. 감각뿐만 아니라 생명의 씨마져 없는 물체들도 공중으로 올라가거나 깊이 가라 앉거나 또는 중간 자리에 머무르면서, 자연 본성이 주는 힘에 따라 자기 존재를 지키려 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의 흔적에 해당한다.

313. 삼위일체 형상 속 사랑의 역할

우리는 우리 창조주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진 인간이며 창조주는 끝없이 진실하시며, 진리는 영원하고 참되다. 그리고 창조주는 영원하고 사랑스러운 삼위일체로, 어떤 혼동이나 나뉘임이 없다. 그리고 그분이 지어내신 온갖 사물을 살펴볼 때, 우리는 낮은 것에서 그의 발자취라고 여길 만한 것을 찾을 수 있다. 만일 더없이 존귀하고 더없이 선하며 더없이 지혜로운 분이 그것들을 만들지 않았다면 그것들은 존재할 수도 없었으며, 어떤 형태도 지닐 수 없었을 것이다. -(계속)

찬송...(3)



15. 찬송과 드럼

찬송(hymn)은 정숙한 소리로 불러야 합니다.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with solemn sound, 엄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시92:1-2) 그런데 드럼이나 탬버린, 베이스기타, 전자악기 등에서 나오는 음악이 ‘정숙한 소리’일까요?

찬송(hymn)에 드럼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이유는 ①드럼 소리는 무질서한 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Pitch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Interval(음정)을 형성할 수 없다. ③선율을 방해할 수 있다. ④반복적으로 두들기는 음은 사람의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하고 육신적인 심장을 뛰게 하여 흥분시킨다. ⑤메인 악기가 아니고 보조적인 악기이다. ⑥성경에 두들기는 악기를 제사 때에는 사용한 적이 없고 주로 유희를 즐길 때 사용했다.

찬송(hymn)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에 인간의 감정을 지나치게 흥분시키고 자극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드럼의 역동성, 폭발력, 에너지는 듣는 이들에게 카타르시스, 무아지경에 빠져들어 쾌감과 흥분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포장하지만 그것은 종교 감성에 사로잡힌 것에 불과합니다.

찬송(hymn)은 인위적으로 조작된 분위기와 감정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드럼과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 나이트클럽을 방불케 하는 광란의 밤을 만들면 안됩니다. 참된 영적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만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그것은 영혼에서 단정하고 정숙하며 가느런한 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7882)

16. 악기파와 무악기파

찬송(hymn)을 부를 때 ‘악기’를 사용할까 말까? 1807년 토마스 캠벨이 시작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환원운동’은 ‘성경대로’를 주장하는 장로교 ‘근본주의’의 뿌리입니다. 캠벨은 악기 사용은 구약의 전통이고 ‘로마 기독교’가 되기 전 4세기 까지 초대교회에서는 악기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교회 안에서 악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악기는 사용해야 한다는 진보적인 주장이 나오면서 1906년에 무악기를 주장하는 극단적 보수주의의 ‘무악기파’, 중립적 ‘독립파’, 악기는 사용하자는 개방적인 ‘악기파’ 세 개의 세력으로 갈라졌습니다.

한국교회는 대부분 ‘근본주의’ 환원교회인데 가장 큰 교단인 장로교 합동이 극단적인 ‘무악기파’이고 두번째 교단인 장로교 통합이 ‘독립파’ 정도의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초기교회 시절엔 교회에 피아노를 들여놓자 장로님들이 망치로 부숴버렸다거나, 청년들이 기타를 치다가 교회에서 쫓겨났다가 하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악기 사용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장로교는 ‘장로교 정체성’이 거의 다 사라지고, 인기와 유행을 따라 온갖 종류의 악기와 세상 문화를 도입하여 예배와 찬송을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로 만들었습니다. 악기는 교인들이 예배와 찬송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오락(娛樂)과 문화활동과, 여흥(餘興) 즐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교회에는 이제 초대교회와 같은 ‘무악기파’는 없습니다. 할머니들만 있는 작은 시골 교회조차도 ‘자동반주기’라는 악기로 쿵쾅쾅 쿵쾅쾅 뽕쾅이나 트로트로 찬송을 불러제깁니다. (7883)

17. 악기 사용의 원칙

찬송(hymn)은 인간들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악기의 소리가 더 커서 인간들의 목소리를 지배하면 안됩니다. 특히 타악기의 사용은 더더욱 절제되어야 하고 시끄러운 인공음을 내는 악기(드럼, 전자악기)사용은 제한되고 절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를 악기가 방해하면 안됩니다.

찬송(hymn)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찬송이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찬송이

아닙니다. 구약 예언서에는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여 현란하게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기록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런 행위가 완악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악기를 사용했다는 성경 구절을 잘 살펴보고 그것이 옳게 평가받았는지 부정적으로 평가받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찬송(hymn)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셔야 진짜 '영적인 찬송'입니다. 인간들을 만족시키는 찬송은 '육적인 찬송'입니다. 타악기의 '리듬'은 사람의 맥박에서 시작되지 영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일은 삼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 했으니 육체를 흥분시키는 '리듬 악기'는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송(hymn)은 가수가 혼자 부르는 '독창'이 아니라 여러명이 함께 부르는 아름다운 화음(和音)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모두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4화음으로 작곡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악기도 하나의 화음으로 동참해야지 악기가 튀어서 찬송을 주도하면 안 됩니다. (7884)

18. 찬송과 사탄의 활동

찬송(hymn)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시22:3)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황소를 드립보다 음악을 통한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시69:30-33)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고 질서를 파괴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음악을 오염시켜 하나님이 음악을 통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찬송(hymn)의 음악은 질서를 따라 정적인 면이 앞서고 동적인 면은 보조의 수단으로 약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각 교회의 '찬양단'은 리듬을 담당하는 악기(드럼, 전자기타)를 앞세워 찬양하는 공간을 온통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채움으로 음악의 질서를 깨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왕상18:16~29)에서 '엘리야의 제단'은 정적이었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의 제단은 광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질서한 음을 들으면 서서히 이성을 잃어 버리게 됩니다.

찬송(hymn)을 부를 때 '목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악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고가의 앰프일수록 어마어마한 고음을 내면서 목소리를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경쟁적으로 더 비싸고 성능 좋은 앰프를 구입했다고 자랑합니다. 거기에 대고 전자악기를 연결해서 틀어버리면 듣는 사람들은 정말 미쳐버립니다.

찬송(hymn)음악은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5음의 요소가 단정하게 정돈된 곡으로 불러야 합니다. 멀리서 들으면 마치 무당이 굿을 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사뭇

니즘 적인 요소가 가미된 음악이나 흥을 끌어올리는 대중음악 같은 곡이나 가사의 내용이 신세 한탄 같은 곡은 찬송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7885)

19.예배 인도팀 찬송

찬송(hymn)은 어느새 '예배 인도팀'에게 넘어가버렸습니다. 미국의 '찰스 폭스 파림'이 1914년 미국 스프링필드에서 오순절 성령(聖靈)님이 강림하신 것을 재현(?)하는 '성령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온갖 악기를 동원한 강력한 '예배 인도팀'을 구성하고 사람들을 단숨에 사로잡는 예수 무브먼트(예수 운동)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유행처럼 갈보리채플이나 존 워버가 주도한 빈야드운동 등으로 진화하여 찬송을 강력한 비트의 세속음악으로 변질시켰고 집회를 록콘서트와 다를 것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용기 목사가 '순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오순절 성령운동을 들여와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예배 인도팀'을 한국에 수입했으며, 한때 수많은 '찬양단'이 조직되어 곳곳에서 '찬양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규모를 가진 교회들은 이제 대부분 지체적으로 '예배 인도팀'이나 찬양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인도팀이나 찬양팀이 찬송을 인도하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인가?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단,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생명력 있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역할을 예배 인도팀이 강탈하는 것만 제외하면 말입니다.

찬송(hymn)이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주도된다면 그것은 공동체적 예배(고전14:26,엡5:19)라기 보다는 엔터테인먼트(공연)입니다. '예배 인도팀'이 훌륭하여 그들의 음악을 따라 부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귀한 찬송의 '경험'이 있는데(시137:1-4, 126:1-2) 그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7886)

20.존 웨슬리의 찬송 조언

- 1.찬송(hymn)을 다른 찬양이나 복음성가나 CCM보다 먼저 배우고 부르세요.(우리나라 '찬송가'가 그래도 많이 절제되고 정제된 좋은 곡들이 많습니다.)
- 2.찬송(hymn)은 악보대로 노래하세요.(어느 교회에서 교인들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스타카토'로 부르는데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사론의 꽃 예수'가 이어지는데 역시 '스타카토'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감동이 확 깨졌습니다.)
- 3.찬송(hymn)은 모든 절을 다 부르세요.(찬송은 '기승전결'로 된 내용이 많고 모든 절이 연결되어 있기에 시간이 없다고 3절을 빼면 내용이 이상해집니다.)

4. 찬송(hymn)은 열정적이고 힘차게 부르세요.(회중찬송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소리를 합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에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곡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불러야 합니다.)
5. 찬송(hymn)은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세요.(자신이 노래를 잘하고 자신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 자기 소리가 특별히 튀지 않게 불러야 합니다.)
6. 찬송(hymn)은 빠르기에 맞춰 부르세요.(일반적으로 회중찬송은 느리게 부르며 나중에는 힘이 빠져 노래가 늘어지니. 약간 빠른 느낌으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7. 찬송(hymn)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불러야 합니다. (찬송은 단순히 음악 취미활동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므로 영으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한마디로 소울(Soul)이 느껴지게 진심을 다 해서 불러야 합니다.) 이상, 존 웨슬리의 '찬송가 부르기 7가지 조언'에 살짝 살을 붙여 봤습니다. (7887)

2. 찬송 음악 어록

1. 아리스토텔레스(BC384-322)는 모방론(模倣論)에서 “그릇된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을 모방하여 참되고 진실된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2. 플라톤(BC427-347)은 국가편(國家篇)에서 “악기나 선법의 사용을 제한시켜서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나약하게 만드는 음악은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3. 클레멘트(AD30-96)는 “우리는 더 이상 고대의 트럼펫이나 비파, 탬버린, 플루트 등을 연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악기들은 전쟁을 좋아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그들의 축제에서나 사용하여 자신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사용되던 것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신중론을 썼습니다.
4. 유세비우스(260-340)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일반 악기가 아니라 생동하는 비파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으로 찬양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5. 제롬(340-420)은 “아이들이 오르간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피리, 수금, 기타라(Kithara) 등의 소리도 듣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젊은이들이 즐기는 대중음악이나 이교도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거나 교리를 교육하고 전파하기 위해 사용했던 음악에 물들거나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의 문화나 이교도적인 문화가 교회 내로 침투하는 것을 우려를 했기 때문입니다.
6. 최용우(1964-아직 살아 있음)는 “나는 악기도 못 다루고, 목소리도 별로니 어찌면 좋을까. 그래도 손가락은 움직이니 얼마나 다행이냐. 열심히 ‘찬송시’를 써야겠다.”라고 했습니다. (7888)

22. 신령한 노래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 하며 찬송하”(엡5:19)라고 합니다. 신령한 노래(Anthem)는 ‘송영(Doxologia)’ ‘송시(頌詩)’ ‘영가’라고 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찬송입니다.

신령한 노래(Anthem)는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스랍’이라고 부르는 찬양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교회에서는 각 교회마다 찬양대를 조직하여 ‘스랍’들을 대신해 ‘송영’과 ‘영광송’을 부릅니다.(성가대는 다른 종교도 사용하는 명칭이니 ‘찬양대’라고 해야 합니다.)

신령한 노래(Anthem)는 아무나 부를 수 없고 구별된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찬송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하면 모든 청중들의 눈이 성가대원들에게 집중되고 성가대원들도 무슨 콘서트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스랍’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날개로 감추며 드러내지 않고 찬양을 했습니다. 교인들은 강단 정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찬송을 하는 반면 대부분 교회가 성가대석의 위치를 십자가가 아니라 청중들을 바라보거나 설교자의 옆 모습을 보도록 배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Anthem)를 받으시는 분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보통 강단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가대도 동일하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성가대석이 성당의 맨 뒤쪽 2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어서 정확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7889)

23. 찬양대 지휘자

신령한 노래(Anthem)는 오직 하나님만 받아야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나팔절(7월1일)을 맞이하여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려고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라는 소집령을 내립니다.(에스라8:1-6) 에스라는 수문 앞 광장에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 위에 올라가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자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고(5절) 에스라가 13명의 찬양대원들과 함께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신령한 노래(Anthem)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집중되면 안됩니다. 어떤 교회는 찬송이 끝나면 지휘자는 뒤로 돌아서서 청중을 향해 인사를 합니다. 인사가 끝나면 우뢰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러면 지휘자는 또 한번 인사로 답례하

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습니다.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아야 하며 인간들이 박수갈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인정머리 없고 냉정한 것 같지만 그래도 지휘자와 찬양대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식하고 낯작 엎드려야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 안됩니다.

신령한 노래(Anthem)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그에 대한 대가(사례)를 받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음악 공부에 엄청난 돈을 썼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겠다는 것이지요.

신령한 노래(Anthem)를 부르는 사람은 그 삶이 구별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악보 좀 볼 줄 안다고, 노래 좀 잘 부른다고 찬양대석에 앉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안다면 감히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을 것입니다.(7890)

24. 찬송에 대한 제안

1. 예배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준비시켜주는 음악을 선포해야 합니다.
2. 예배 찬송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사상과 생각을 고결한 분위기로 인도하는 음악을 선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3. 찬송 가사는 성경적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어야지 너무 개인적인 간증이나 경험에 치우치면 안됩니다.
4. 음악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성경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청중의 감성을 인위적으로 흥분시키거나 몸을 흔들게 만드는 음악은 사용을 절제해야 합니다.
6.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되 인간의 교만이 드러나는 과도한 기교를 피하고 단정하고 담담하게 연주해야 합니다.
7. 베이스기타나 드럼과 같은 자극적인 악기에 의해서 분위기가 압도당하게 해서 안 됩니다.
8. 신체적, 정서적, 지적, 영적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균형 있게 만드는 음악을 사용해야 합니다.
9. 찬양 인도자 또는 교회의 지도자는 품위 있고 경건한 음악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성경의 원칙을 세상 자유로운 음악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10. 매주 음악과 찬양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예배와 설교와 성경 연구가 소홀히 여김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7891) ©최용우



코스트코 곰인형 (사진:최용우)

관심

코스트코 인형 코너에 거대한 곰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아.. 안녕.” 인사를 했다. 음.. 왜 이렇게 동족을 만난 것 멍키로 친근하다냐.. 내가 곰(단군)의 후손이라서인가, 내가 그냥 곰팡이라서인가....

사람들이 지나가며 전부 한 번씩 곰을 만져본다. 아이들은 손을 잡고 흔들어 보고 어른들은 배를 쿡쿡 찌러보며 “풍선이네...” 곰과 함께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고...(가족사진인가?) 무심코 걸어가다가 곰을 보고 옛! 흠짓 놀라는 사람도 있다.

뒤쪽에 붙은 가격표를 보니 30만원이다.

한 마리 사서 데려가고 싶은데... 싶은데... 우리 집에는 곰을 놓을 곳이 없다. 만약 곰을 사갔다가는 아내에게 쫓겨나 문밖에서 곰과 함께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을 수는 없겠지?

금산인삼축제

아내와 처제와 장모님을 모시고 금산인삼축제에 다녀왔다. 집에서 8:30분 출발하여 처가에 가서 장모님과 처제를 태우고 경부고속도로 100km를 달려 11시에 금산 인삼랜드에 도착했다.

백종원 푸드에서 삼계국수와 기타 여러 가지 먹거리로 점심을 먹고 본격적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체험도 하고 시식도 하고 공판장에서 인삼도 사고 족욕도 하고 사진도 찍고..

작년에 갔던 매장에 다시 가서 우슬초도 사고 인삼튀김도 먹고, 그런데 착각하여 옆집 가게로 들어갔다. 어쨌든 축제답게 여러 가지 공연과 각설이 팀과 농악놀이, 기타 여러 가지 북적북적.

외국인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샤라라라라... 갓쓴 할아버지도 보이고 드론이 촬영을 하고 몇 군데 무대에서는 시끌벅적 공연을 한다.

재미있게 즐기다 내년에도 또 오자고 하고 돌아왔다.



인삼 먹고 들어

지난주 금산인삼축제에 갔을 때 사 온 인삼을 썰어서 꿀에 재니 양이 폭 줄어들었다.

“애계? 얼마 안 되네?”

다른 사람들이 자루로 한가득 뽕뽕하게 사는 것을 보고 “우와~ 많이씩도 산다”

그랬는데, 원래 그렇게 사야 하는 거였어. 장모님도 생각보다 양이 얼마 안 된다고 “가까우면 가서 더 사 오고 싶다”고 하신다. 아내가 9일 한글날 쉬니까 다시 가자고 해서 다시 갔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미처 다 못 돌아본 곳까지 꼼꼼하게 구경을 했다. 인삼축제의 규모가 엄청 컸다. 수삼을 파는 공판장만 일곱군데나 있었다. 삼을 세척해주는 곳도 곳곳에 있었다. “저기에서 떨어지는 잔뿌리만 모아도 금방 한 바구니는 되겠네.” 관광객이 데리고 온 개가 쿵쿵 냄새를 맡는다.

“금산에서는 곧 개도 인삼을 물고 다니겠네.”



세종축제 소감

세종도서관 책 반납하러 갔다가 세종호 수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세종축제>를 돌아보았다. 호수 이쪽, 저쪽, 주차장 근처 세 군데에 나누어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세 군데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었다. 세 군데를 도는 전동차가 운행되고 있었지만 '요금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돈을 내고 타는 것인가 보다.

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먹거리'인데 푸드트럭 10여대가 전부여서 너무나도 아쉬움... 예전부터 세종시에서 하는 축제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늘 아쉬움...

9일 개막하여 어제까지 30만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음? 진짜? 아무리 봐도 진행요원 숫자가 더 많아 보이는데... 행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했지만, 세종시만 할 수 있는 차별화 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쉬운 일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해에 임플란트를 80만개나 한다는 글을 읽고 웬만하면 다 하는구나... 나도 언젠가는 하겠지. 그런데 왜 그렇게 비싸? 하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임플란트 치료를 하다 보니 이게 생각처럼 똑딱 할 수 있는 쉬운 공사가 아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하면서 벌써 여덟 번이나 광주에 있는 치과에 다녀왔다. 한번 갈 때마다 차비와 비용이 10만원씩 들어간다.

오늘은 드디어 어금니에 '임시치아'를 붙였다. 한 달 동안 사용해 보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에 진짜 임플란트 머리를 박는다고 한다.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뭔가가 딱 박하니 나도 모르게 헛바닥이 자꾸 활으며 확인을 한다. 얼른 뭐든 씹어서 테스트 해보고 싶다. 저녁에 아내가 치킨을 사 줘서 조심조심 씹어보았다.

아직은 많이 어색하고 쪼끔 아프다.



대단한 생명력

창밖에 화분에서 자라던 '흰민들레'를 화분 정리하면서 버렸다. 그런데 민들레의 뿌리가 화분 밑에 있는 구멍을 통과하여 땅바닥 보도블럭 사이로 뚫고 내려가 있었다. 그래서 뿌리를 파낼 수 없어 싹뚝 잘라버리고 그 위에 블록으로 덮어 놓았었다.

오늘 무심코 보니 그 뿌리에서 다시 민들레가 자라 나와 밖으로 무성하게 잎사귀가 자라고 있었다. 정말 대단한 생명력이 아닐 수 없다. 생명 있는 것들은 그 생명을 지켜나가는 힘인 생명력(生命力) 있다. 병들어 힘이 없고 늙어감에 따라 기운을 못 쓰는 것은 생명력의 약화로 인한 자연적인 현상이다.

야생 식물의 강인함과 야생 동물의 공격적 저돌성은 재배식물이나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것은 내재되어 있는 생명력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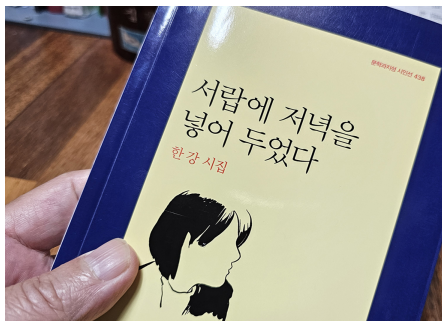
노벨문학상 한강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 여기저기 넘쳐난다.

<정작 본인은 마치 평생 수행정진하여 자기를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는 경지에 이른 고승처럼 외부의 난리법석을 피하여 자기를 감추는 중이다.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했고, 자기 이름을 딴 문학관 건립이나 문학상 제정도 마다하고, 유일한 가족인 아들과 평화롭게 차 한잔 마시는 평화를 유지하는 중이다.>

지금까지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람은 121명이고 91명이 유럽 작가다. 처음부터 아시아 언어가 노벨문학상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조건인 것이다. 특히 한국어의 풍성한 감성을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내 책꽂이에 오래전에 산 한강 작가의 시집이 한 권 있다. 그런데 시의 문장이 너무 날카로워서 읽다가 말았었다.



엄마와 딸

아내와 함께 장모님을 모시고 '예산 삼국축제'에 다녀왔다. “그냥, 가볍게 어디 바람 쐬러 다녀와요.” 하고 집에서 1시간 거리의 예산장터에서 ‘국수,국밥,국화’를 주제로 열린 3국 축제에 모시고 가서 국수 한 그릇 말아먹고 왔다.



무대에서 벌어진 ‘국악경연대회’도 보고 ‘난타공연’도 보고 예쁘게 꾸며놓은 국화도 보고 두어시간 잘 놀다가 왔다. 장모님은 평생 이런 곳에 와 본 일이 없으시고 했다. “누가 데리고 가면 모를까,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나..”

앞으로 종종 장모님 모시고 여기저기 구경 다니기로 했다. 내 계획은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높은 덕유산 정상에 장모님 모시고 올라가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높은 산꼭대기에서 장엄하게 펼쳐진 세상을 한번은 내려다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

“또 어디 꽃축제 하는데 없어요?” 하고 아내가 ‘꽃축제’를 찾는다.

검색해 보니 익산에서 ‘천만송이국화축제’를 한다. 할 일을 최대한 서둘러서 일찍 끝내고 아내와 함께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축제장에 달려갔다. 1-2시간 정도의 거리는 다닐만 하다.



천만송이국화축제는 10일 동안 하는데 프로그램이나 현장의 분위

기가 정말 알찼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먹거리 장터도 만족스러웠고 축제장 9곳을 돌아다니며 스템프를 찍는 것도 재미있었다.

아내가 “세종시에서 꼭 한번 와서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다.

세종시는 ‘세종호수공원’이라는 너무나 좋은 장소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원박람회’이런거 하려면 먼저 국화꽃으로 호수공원 뺨 둘러서 꽃길 같은 것을 만들어 뭔가 시민들의 시선부터 사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제674회 황석산(1192m 함양)

정말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했다. 산 아래서 꽃구경하며 놀고 있을 거라며 따라왔는데, 오메? 얼떨결에 정상까지 다녀오고 말았네?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종아리가 아플텐데... 오랜만에 양지등산 팀으로 이상호 목사님 부부, 정주일 장로님 부부와 오늘 첫 만남인 송지영 목사님 부부 모두 8명이 동행했다. 점심은 정주일 장로님이 소고기 전골로 사 주셨다.



등산 후에 원래는 해발 900m 감악산 정상 '별바람 언덕'에서 펼쳐지는 '꽃엔별 축제'에 가려고 했는데, 입구에서부터 차가 밀려 아예 산에 못 올라간다는 연락을 받고 꽃구경은 포기했다. (2024.10.1.)

▲제675회 비학산302 (일출봉252m) 2024.10.10

▲제676회 두우봉(57.4m 세종) 2024.10.17.

▲제677회 관악산(629m 서울)

10년전 김종천 목사님과 관악산 11국기봉 종주산행을 했던 기억이 난다. 오늘은 처음으로 서울대 공대 코스로 올랐다.

집에서 10시 출발 서울행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가 지하철-버스 갈아타고 서울대학교 제2공학관 앞에 내리니 1시20분.

자운암을 들머리로 2시30분에 연주대에 도착하여 인증했다. (2024.10.30.)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창문여니 첫눈내려 예쁘게도 쌓여있네

소설은 ‘작은 눈’이라는 뜻이며 ‘첫눈이 내리는 날’입니다. 기온이 영하 2~3℃로 떨어지면 무 김장을 먼저 하고 영하 4~5가 되면 배추김장을 합니다. 김장 김치는 땅속에 깊게 묻어 겨울철부터 늦봄까지 먹는데, 지금은 김치냉장고 깊숙이 김치통을 차곡차곡 쌓습니다.

소설 무렵은 월동준비를 위한 잔일들을 합니다. 시래기를 엮어 말리거나, 무, 감, 호박 등의 재료를 썰어 햇볕에 말려 두어 한겨울 먹거리를 마련합니다. 겨우내 소 먹이 벗짚을 모아두는 것 역시 소설 즈음에 합니다.

지금은 이런 가을견이를 농기계가 다 하는 시대이긴 합니다.



②표지사진 이야기

계룡산 동학사 천장골 올라가며 찍은 단풍사진이다. 계룡산은 봄엔 벚꽃축제를 하고 가을엔 단풍축제를 한다. 매표소에서 동학사까지 올라가는 길은 유명한 단풍터널 길이다. 오래된 단풍나무가 마치 불타오르는 것처럼 붉게 물들어 햇볕에 반짝인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에도 빨간 단풍잎이 떨어져 쌓인 모습은 카메라를 아무렇게나 눌러도 작품 사진이 찍힌다. 계룡산은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면 갈 수 있어서 일년에 두세번씩은 꼭 오르는 산이다.

③도서출판 소식

〈신간〉 일상의 노래(시13)/210쪽 15000원 -2024.11.29 출간

〈신간〉 들꽃편지21권-쑥갓꽃호 /510쪽 31000원 -2024.11.15 출간

86.만사록 1권-생각 (만사록 시리즈1) /304쪽 15000원 -2024.10.11 출간

85.마가-예수어록 (어록 시리즈2) /324쪽 15000원 -2024.8.29.출간

84.일상의 기적 (시12) /컬러210쪽 15000원-2024.7.30. 출간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우영’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82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4.10월 재정결산

2024년 10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강경희 김광현 김상식 김준경 박근식 박승현 박신혜 박영우 양희창 오창근 옥치오
이인숙 이재익 이진우 임대근 장기갑 조정옥 지경희 최성복 한주환 들꽃교회
새벽기도 선한열매교회 안디옥교회 함안중앙교회
25분이 92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버 이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사역 -인터넷신문 햇별같은이야기 2024.11.22일까지 7956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후보자료파일, 전도자료 발행

③출판사역 -그동안 88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사역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독거인, 문서2, 인터넷, 북방선교2, 선교사, 난민)

⑥피정사역(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몇 년 동안 작은 흙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로 피정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기독교목회사역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피정사역을 위한 특별 후원헌금 계좌 /우체국 100347-02-096053(이인숙))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새로 나온 책

제21권 썩갯꽃호

이 쪽지는
 구원의 비밀과
 마음의 양식을 담아
 사랑으로 전하는
 작은 선물입니다.

〈들꽃편지〉제21권 썩갯꽃호
 최용우 편집 510쪽 31,000원
 교보문고 퍼플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햇볕같은이야기(<https://cyw.pe.kr>) 발행인 최용우가 일상 속에서 건져 올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와, 주변 사람들의 글, 그리고 너무 난해하고 지적인 말씀 연구가 가득한 이 시대에, 방금 건져 올린 물고기처럼 팔딱거리는 싱싱한 묵상의 말씀, 속 깊은 신앙적인 고민들을 거침없이 털어 놓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편지’입니다.

〈들꽃편지〉〈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지입니다. 〈들꽃편지 제21권〉은 제652호(2023.5월)부터 제669호(2024.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매월 발행한 18회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임이 제한되었을 때, 우리는 주일 오전 9시 예배를 마치고 같은 세종시이지만 차로 40분 거리인 처가에 달려가서 장모님을 모시고 가족 점심식사를 하기 시작하여 벌써 1년 6개월이 되어갑니다. 요리사가 세 명이나 되니 매주 화려한 만찬이 펼쳐지고 가끔 한식뷔페식당에 가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매월 만들어서 전국에 띄웠던 월간〈들꽃편지〉를 모았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29일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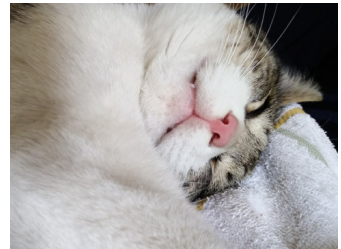
<최용우 시집 '일상' 시리즈>

- 8. 일상의 행복 / 210쪽 13600컬러
- 10. 일상의 기쁨 / 210쪽 13400컬러
- 12. 일상의 기적 / 210쪽 15000원컬러
- 13. 일상의 노래 / 210쪽 15000원(올컬러)

일상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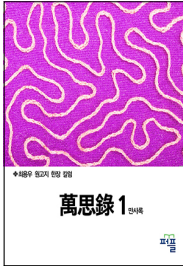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
계곡 가까이에 있어서
시원한 산소 공기가 산에서 내려오고
아침에는 온갖 새들이 모여들어
쪼롱쪼롱 노래하는 소리에 잠을 깬다.
어느 날 문득,
이곳에는 새들이 참 많구나
새소리는 왜 이렇게 가볍고 흥가분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새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날기 위해서 위장의 반만 채운다고 한다.
나의 삶도 새처럼 노래하며
반쯤은 비우고 가볍게 살고 싶다.



최용우 210쪽(올컬러) 15,000원 퍼플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용우 저서



만사록 1권-생각

최용우 원고지 한장 칼럼 -만사록1권은 생각, 열매, 선물, 행복 네가지 주제로 쓴 1000편의 포도알 같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오직 사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생각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15,000원 304쪽 펄플



① 맛있는 주보+파일

매주 주보 만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보고 나서 모이두고 싶을 만큼 내용이 알차고 보기 좋고 영양가 만점인 맛있는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할수 있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펄플



② 맛있는 주보+파일

주보는 교회의 얼굴이요 이미 지입니다. 주보는 교회의 문화요 거울이요 역사를 담는 그릇입니다. 멋지고 근사한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펄플



③ 폼나는 주보+파일

디자인 주보는 시각적 효과를 뇌에 각인시키지만 내용중심 주보는 지성을 자극하고 행동을 이끌어내죠. 내용 중심의 폼나는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펄플



④ 탐나는 주보+파일

9가지 내용이 실려 있어 누구나 탐낼 만 한 알찬 주보를 교회 이름만 바꾸어 우리교회에서 만든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펄플



⑤ 양육주보+파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여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한다는 주제에 맞추어 편집한 양육 중심의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펄플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샬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정) <http://cyw.co.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속터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WildflowerLetter)제670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